

2020 vol.2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웹소식지

GyeongSangNam-Do  
Environment  
Training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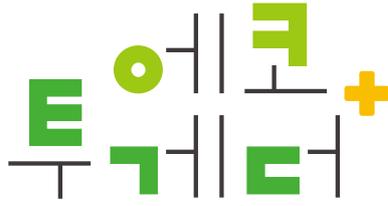
WEBZINE



ECO TOGETHER



꽃마리 *Trigonotis peduncularis*  
꿀풀목 지치과



ECO TOGETHER

### 03

#### ECO NEWS 환경소식 및 정책동향

기후위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박지호 창원 가포초등학교 6학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환경교육을 해야 할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교육

지찬혁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 8

####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이야기

거제 자연의 벗

### 10

#### 경남환경교육의 이모저모

자연환경해설사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14

#### 환경교육 캘린더

7월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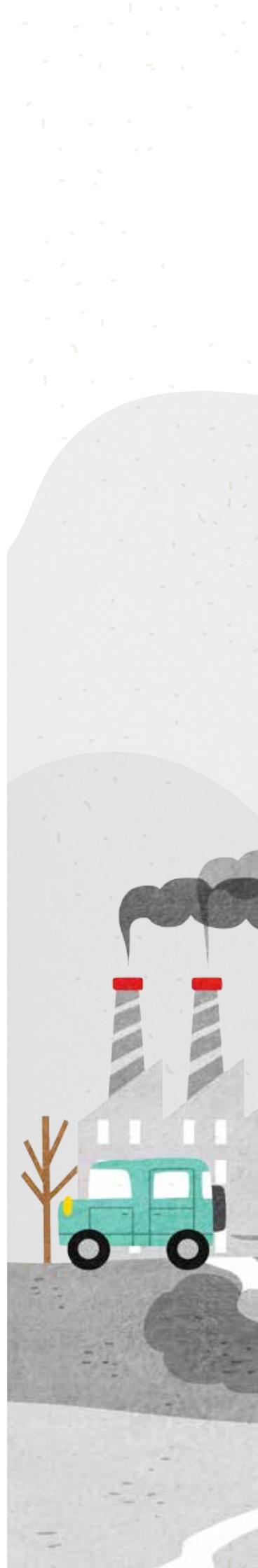
### 16

#### 기후변화 숨은그림찾기

에코투게더 2020 vol.2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처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지리산국립공원내)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교육문의 055.254.4032~6 대표전화 055.254.4011 팩스 055.254.4019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gnnature  
디자인 (주)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INNO

※ 「에코투게더」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환경교육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후위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박지호 창원 가포초등학교 6학년

우리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기차가 절벽으로 간다는 사실과 기차를 멈추려면 아주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력을 내며 더 편하도록 발전해 왔지만 칸과 칸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왔죠. 어떤 칸들은 이미 기차와의 연결이 끊겨 선로에 뒤집혀 나뒹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절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벽은 지구의 종말이고, 빠르게 달리는 기차는 기후위기입니다. 연결이 끊긴 칸들은 사라진 동물들과 사람들의 보금자리이고, 브레이크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지 못하면 미래엔 브레이크를 걸어도 소용없이 절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산불이나, 기후위기로 든 가뭄 때문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사건 기후 위기 때문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아주 먼 대양에서 시작한 파도는 해안가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도달한 후에는 도시를 파멸시킵니다.

파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방조제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방조제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엄청난 파도는 오지 않는다, 파도가 와도 미래에 올

것이다. 내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방조제를 설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후위기의 파도가 오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은 데도 말이죠. 지난 백 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이상 올랐고, 이산화탄소 수치도 위험한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수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각국 정부는 기후 위기의 파도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만 할 뿐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성 때문에 관심을 받았고 정부는 관심으로 생긴 시위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식을 위해 열대우림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열대우림이 타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후 위기의 대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후위기의 대한 내용을 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학교 급식에서 채식 선택 급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 물품들을 살 때 탄소발자국을 알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후위기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기후위기 부정론자와 환경파괴자들에게 시간을 주어 지구를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만들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에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기차가 이 속도 그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차의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로를 만들어 지구에 모든 사람들,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환경교육을 해야 할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교육

지찬혁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사무국장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마스크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이 있는지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민주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전 세계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기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역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유로운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이번 위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국가들의 처방에 대한 평가는 전염병의 유행이 지나거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했던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힘들게 되었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교육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집 풍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아이들이 노는 문화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서버 에너지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해외 보도를 보면서, 우리의 온라인 문화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지만, ‘접촉’, ‘집합’을 주요한 수단으로 한 체험학습과 현장교육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교육은 이제 ‘비접촉’, ‘저밀도’와 같은 ‘사전예방적 조치’들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접촉’, ‘저밀도’는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많은 제안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강조하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의 원칙들은 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 ②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보장, ③ 현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교원의 전문성·자율성 존중, ④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 수용한 선제적 대응, ⑤ 학생 건강과 안전의 최우선 보장**과 같습니다. 교육부가 강조한 원칙 하나하나를 보면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크게 달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등교수업을 놓고 한쪽에서는 입시를 위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주장이 극과 극으로 대립된 것이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취하는 결정에 따라 각각의 원칙들이 충돌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직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셈이죠.

‘환경교육’처럼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비접촉’, ‘저밀도’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교육만으로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5대 원칙을 지키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교육이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면서 소외되지 않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경남교육청이 ‘미세먼지’에 대처했던 사례를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정보만 믿고 현장체험교육의 시기를 결정했던 우리는 교육청이 각 학교마다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들이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의 재량권은 경남지역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깨끗한 공기의 양, 다른 말로 하자면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실에서 확보해야 하는 '환기량'은 예산의 벽에 부딪혀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미세먼지 대응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교육 현장은 미세먼지 사례보다 보다 근본적인 환경변화를 전제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년별 분산교육으로 저밀도 교육을 실시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시설은 탄소배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 혹은 저감하면서도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집합 이외의 교육 수단으로 온라인 교육 이외의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지, 교육시설 내 동선이 전염병의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등등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교사가 지금과 같은 크기의 교실에서 10명을 가르쳐야 하는지, 20명을 가르쳐야 하는지 안전의 문제는 결국 숫자의 문제입니다. 매년 200명가량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학교 및 환경교육 현장을 찾아 30여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이 효율성과 교육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안전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구체화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안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 보이지만, ① 학교시설의 동선을 감안한 공간 디자인, ② 저밀도 분산 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전문 인력의 확보, ③ 미래의 환경변화에 맞춘 환경교육 콘텐츠의 지역화, ④ 미래 세대의 사회적 수요에 필요한 환경교육의 주류화와 같은 원칙들이 추가되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안들이 앞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의 아이들이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드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을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산, 공간구조, 인력 등등 핑계를 수없이 댈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과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장기적인 로드맵은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경남환경교육  
네트워크 이야기

# 거제도 자연생태 이야기 거제 자연의 벗

경남 거제시 연초면 대금산로 20

TEL. 010-9059-5012    MAIL. eco21kj@hanmail.net



## 거제 자연의 벗은 어떤 곳인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도 자연의 생태 조사를 하고 있는 김영춘입니다.

‘거제 자연의 벗’은 거제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거제도의 자연과 생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도의 자연풍경과 생태적인 장점을 살려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거제도의 생태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거제도 생태교육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거제도에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팔색조와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거제도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남방도사리도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자 북방계식물인 애기송이풀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생물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거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제관내 지역의 학생 및 시민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없어 아쉽습니다. 통영RCE 세자트라숲처럼 거제에도 생태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편적으로 생태교육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생태관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태관광에는 생태교육이 녹아있다고 봅니다. 생태관광은 생태교육의 연장선으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볼거리, 체험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 그렇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느낌표를 줄 수 있는 것이 생태관광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제 자연의 빛에서 하고 계시는 생태관광이나 생태교육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거제도의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처음 접하는 것들에 다양한 호기심을 표출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학교에서 하는 생태 교육시간이 더 늘었으면 합니다.

거제 자연의 빛에서는 거제도의 주요 생물종과 천연기념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때로는 거제도 서쪽 해안을 따라 보이는 많은 스티로폼을 보여 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 앞으로 하고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995년부터 지금까지 거제도의 생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애기송이풀의 새로운 서식지도 찾았고, 올해도 거제도를 찾은 팔색조를 곳곳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거제시청의 전시실에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쓰레기 및 낚시쓰레기 영상 사진전도 개최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도 있지만 거제도의 자연·생태 분야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말입니다. 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거제도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거제도의 생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거제 자연의 빛이 걸어온 길

- 2010. 03. ~ 「거제도의 새, 사진전 15회 개최
- 2010. 05. 팔색조 첫 촬영(이후로 해마다 조사 촬영함)
- 2012. 11. 「거제도의 새 1, 2」 리플렛 제작 - 91종 135장 사진
- 2014. 11. 생태체험 교육용 '팔색조 모발' 제작
- 2014. 12. 생태체험 교육용 '후투티 모발' 제작
- 2015. 04. 거제자연의빛 대표 ~
- 2015. 09.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발간 「거제 산촌습지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타당성 연구 보고서」 참여
- 2015. 10. 「거제도의 새 1, 2」 리플렛 제작 - 123종 205장 사진
- 2015. 11. 생태체험 교육용 '물총새 모발' 제작
- 2016. 03. 거제연안 아비류 집단 폐사 조사(원인 밝힘)
- 2016. 03. 생태교육자료 & 핸드페인팅 전시회 - 거제시청
- 2016. 06. 자생식물 '송악' 보호수 지정 요청 & 지정됨(10월)
- 2016. 07. 매립중인 고현항 수달 보고서 - 부실함 밝혀 재조사 기여
- 2016. 09.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발주 「거제시 산양천-구천천 구간 남방동사리 서식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공동참여
- 2017. 04. ~ 2018. 01.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모니터링 및 보존 관리방안 연구용역」 연구원 활동
- 2017. 10. 「거제도 자연생태 이야기」 전시회 - 제12회 거제섬꽃축제
- 2018. 04. ~ 2019. 01.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 연구원 활동
- 2018. 05. ~ 2019. 01. 「거제 수달 생태 모니터링 및 보호관리방안 연구 용역」 연구원 활동
- 2019. 01. 거제시 둔덕면 학산 - 청동기시대 패총 발견
- 2019. 01. 거제시 사등면 청곡 - 공룡 발자국 화석지 발견
- 2019. 03. 「거제도 낚시쓰레기 & 해양쓰레기 영상 사진전」 - 거제시청 전시실
- 2019. 09. 제2회 경남환경교육 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 자연환경해설사

### 🌿 자연환경해설사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하는 해설사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해설사 양성을 위해 환경부는 자연환경해설사(12.1)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 🌿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

생태관광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에서 자연환경해설 및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정보전달자, 교육자, 프로그램기획자)

### 🌿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면?

- 기본양성과정 80시간 : 경력과 학력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가능
- 간이양성과정 35시간 : 자격요건을 충족 \*자격요건 :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 문의전화 ○ 055)254-4034



## 자연환경해설사 인터뷰

● 자연환경해설사 조윤영(의령 청아생태농장 대표)

### Q.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취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년에 의령에 귀농해서 생활하던 중 저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시골에서 친구들과 산천을 누비며 놀았던 경험들을 지금 아이들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육장 한 곳을 생태학습장으로 꾸몄습니다.

막상 생태학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반성수목원의 숲해설사 교육에 참여하려 했으나 비전공자에다가 산림관련 일을 한 경험이 없어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던 중 경남환경교육원에서 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을 알게 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남환경교육원의 자연환경해설사 간이과정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가 되었습니다.

## Q. 자연환경해설사 자격 취득 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중 상당수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곤충, 벌레, 동물을 무서워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통하여 두려워하던 모습을 극복하고 곤충, 벌레, 동물 등을 사랑스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자연환경해설사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을 마치고 “선생님, 저도 오늘 곤충이 너무 좋아져서 앞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묻는 남자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맙고 기특해 여러 가지 조언과 함께 앞으로 파브르보다 더 훌륭한 곤충학자가 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Q. 자연환경해설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되면 좋겠다하는 점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신의 삶과 생활을 자주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신이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자신을 다듬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자연환경해설사로서 환경문제, 생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한 명이 자연과 생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특화된 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자연환경해설사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Q. 환경교육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장 위주의 교육체제에서 환경교육은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이고 알지만 실제로 가는 방향은 달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뜻을 모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보면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곳곳하게 이 길을 가려합니다.

## Q.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농촌교육농장인 청아생태농장을 운영하면서 학교와 농장에서 새와 생태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과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학년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재, 교구를 발굴하고 보급할 생각입니다. 또한 농장에서 논과 둠벙, 생태텃밭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장의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농장을 찾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환경교육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관리를 위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우수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양성과정 운영으로 역량있는 지도자 배출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역할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행·운영(교육자) - 3급·2급·1급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개발(기획·개발자) - 2급·1급
- 환경교육의 경영·관리(경영·관리자) - 1급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되려면?

- 정규양성과정 96시간 : 경력과 학력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가능
- 간이양성과정 24시간 : 자격요건을 충족 \*자격요건 : 환경교육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문의전화 ○ 055)254-4035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터뷰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강류안(사천YWCA 사무총장)

### Q.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취득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환경교육 목적에 맞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하기 위해 기획·진행·분석·평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환경교육지도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싶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령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식이 변화도록 돕고 싶습니다. 더불어 재미있고 실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Q. 지금 하시는 업무와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의 연관성이 있나요?

사천YWCA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총체적으로 아동에서부터 어른까지 교육과 체험, 실천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령층과 관심군도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더욱 눈높이에 맞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지도력을 높이고 스스로 여러 학습들을 참여하고 수료와 자격증을 갖추는 등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교육을 통해 현재하고 있는 일들에 역량강화와 전문성, 연대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Q.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환경교육지도사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어려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환경교육사'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반가웠습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얼른 재정비되었으면 합니다.

### Q. 다양한 환경교육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환경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민감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상식으로 치부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덜 민감해지고 생활의 편리와 영리만 추구하는 순간을 발견할 때 속상합니다.

하지만 자연환경에서의 배려와 윤리를 발견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교육 활동이 참 즐겁습니다.

### Q. 선생님의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해양환경 생태조사, 실개천 정화, 생태교란 식물조사, 쓰레기 소각 감시, 탈핵교육과 운동, EM전문강사양성, 미세먼지 교육생양성, 환경연극단 창단, 에코강사양성 등 교육과 실천이 어우러진 환경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여 환경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 보전·보호 활동의 청지기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 7월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제 협동조합의 날	■ 자연환경해설사 기본과정				세계인구의 날	
13	14	15	16	17	18	19
	■ 자연환경해설사 기본과정					
20	21	22	23	24	25	26
	■ 자연환경해설사 기본과정				■ 다문화가족캠프	
27	28	29	30	31		
			세계 호랑이의 날			
			■ 생태전문화교육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8월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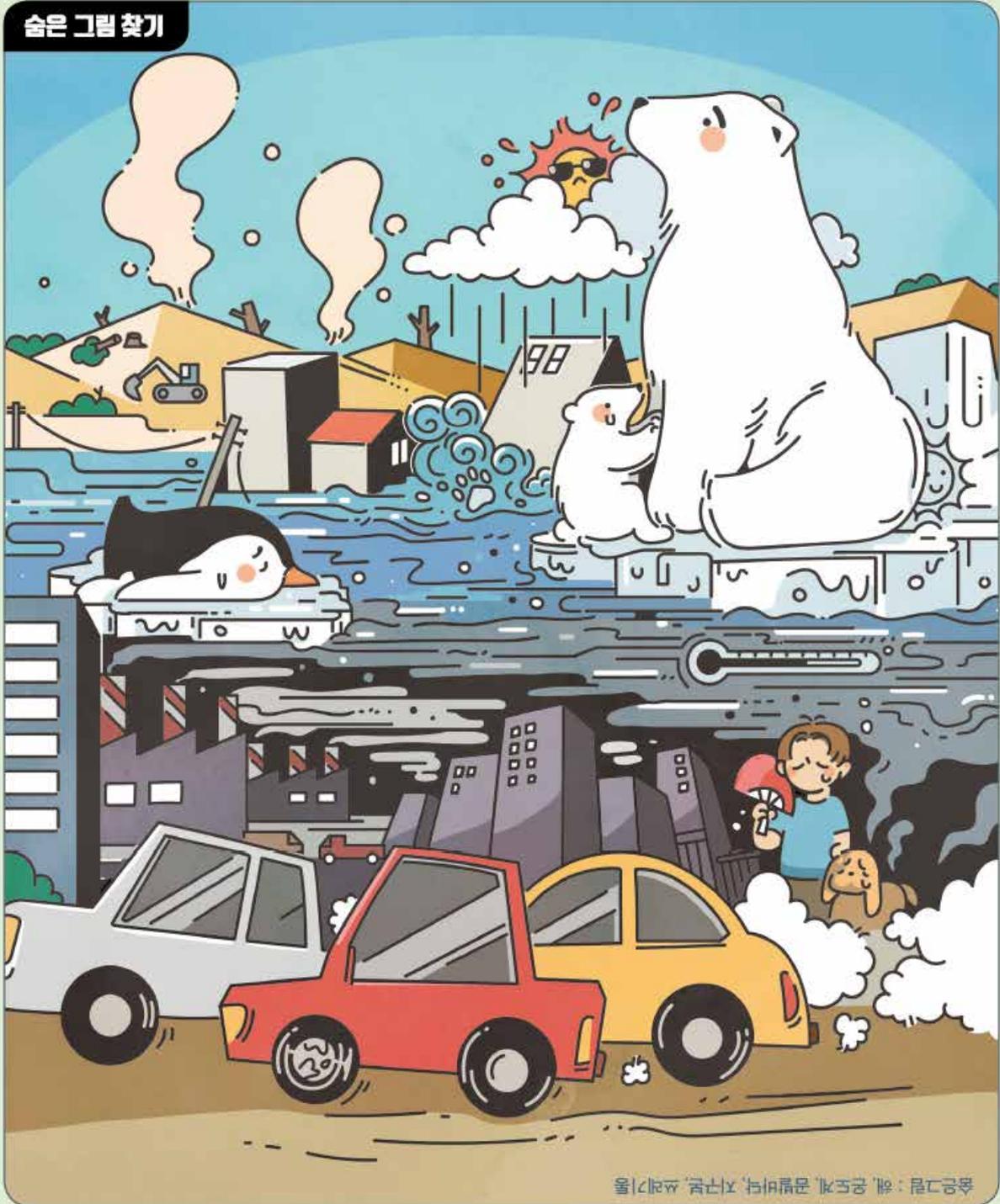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 녹색가족 환경캠프		
	3	4	5	6	7	8	9	
	■ 교원직무연수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		■ 주말환경교실	세계 원주민의 날	
	10	11	12	13	14	15	16	
	■ 업사이클러 전문가 과정							
	17	18	19	20	21	22	23	
		■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				에너지의 날		
				■ 대학생 환경아카데미				
						■ 습지탐험대		
	24/31	25	26	27	28	29	3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구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야.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방출되면서 지구의 기온을 현상을 말해.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온실가스인거야. 그렇다면, 온실가스가 왜 문제일까?

## 숨은 그림 찾기



## 기후변화 숨은그림찾기

**지구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방출되면서 지구의 기온을 현상을 말해.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온실가스인거야. 그렇다면, 온실가스가 왜 문제일까?

**숨은 그림 찾기**

출처: 한국환경교육원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꽃마리 *Trigonotis peduncularis*

꿀풀목 지치과

풀밭이나 밭둑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 이른봄에 하늘색 꽃이 핀다.  
꽃봉오리가 줄기 끝에서 돌돌 말려 있다고 꽃마리다.  
필 때는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지면서 핀다.  
꽃잎은 끝이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가운데는 노랗다.  
초여름까지 꽃을 볼 수 있는데, 키도 작고 꽃도 작아서  
다른 꽃들이 화려하게 피기 시작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  
쪼그리고 앉아서 봐야 꽃이 핀걸 알 수 있다.

- 2019년 식물세밀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서윤숙 作

## 경상남도환경교육원

[52236]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지리산국립공원내)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교육문의 055.254.4032~6 대표전화 055.254.4011 팩스 055.254.4019

홈페이지

